

컴퓨터공학과 202135901 강세영 - 과제 1

본 영상을 시청하고, 7 가지 부분에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을 7 개의 챕터로 나눠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CH1. 체감하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의 감소]

먼저,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 할루시네이션의 감소였다. 필자는 챗 GPT 를 군 전역 이후 24 년 3 월에 처음 사용해봤고, 처음에는 혁신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만족감이 높았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과 특성 상 코딩을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코딩을 지피티와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원하는 코드를 짜달라고 했을 때, 필요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붙어있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현이 되지 않았아서 사실상 흐름 정도만 잡아주는 거고, 코드 자체는 내가 직접 짰던 거 같다. 물론, 나의 활용 능력이 떨어져서 일수도 있겠지만, 실제 서적이나 자료를 찾아봤을 때 거의 쓰지 않는 코드, 혹은 틀린 코드인 경우도 많았기에 그런 부분에서 지피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왜 발생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사용을 했는데, 올해 이러한 오류가 많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올해 초에 있었던 COT 형태, 리즈닝 모델 형태로 바뀌면서 할루시네이션은 크게 줄어들었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무서운 마음도 한편으로 들었다. 이제 단순히 예측을 하는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사고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가진 고유함 중에는 사고도 있는데, 이미 일정 부분은 정복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불과 1 년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있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CH2. 인간 사이의 대화 단절]

AI 가 트렌드에 올라탔을 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다. 실제 주변에도 AI 와 대화를 하는 지인이 있고, 교수님도 그런 예시를 들어주셨다. 필자는 인간과 인간 간의 대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심리학 서적에서도 인간 간의 대화는 단순히 고립감을 해소한다는 효과 뿐만이 아니라 고립감 해소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 남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등 네트워킹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소통을 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본 영상을 시청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정말 AI 와 대화하는 게 피로도도 낮고, AI 가 사람들의 문장을 기반으로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답도 충분히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했던 기업은 서비스는 있으나 고객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안했던 서비스가 시장에 핏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쉬움도 컸지만, 대화가 단절되는 현 상황에 대해 좌절감도 크게 느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잃지 않는다면,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서 있을 수가 있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기회들이 줄어드는 게 내게 큰 아쉬움을 줬던 거 같다. 필자도 앞으로 더 고민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에도 조금은 귀찮은 옛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그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했으면 한다.

[CH3. AI 에 대한 직관]

AI 는 결국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 교수님의 이 멘트가 정말 크게 와닿았던 거 같다. 필자의 진로는 소셜 벤처를 창업하는 것이다. 해당 진로를 말한 이유는, 현재 소셜 벤처도 이런 AI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서도 AI 기술의 유무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AI 에 대한 학습 의지는 굉장히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무턱대고 선형대수, AI 모델 개발 쪽으로 접근을 했다.

본 강의를 통해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어쨌든 AI 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입장이기엔, 나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미나이와 지피티, 러버블과 같은 바이브 코딩을 매우매우 많이 접해봐야 한다. 많이 물어보고, 그 결과값들을 봐야 내가 질문을 하면 어떤 형태로 답변하는 지에 대한 직관이 생기고, 더 나아가 내가 A 라는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계속 부딪히면서 직관을 가지는 것,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AI 를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한다기 보다는 활용 쪽으로 접근해서 많이 테스트 해봐야 할 거 같다.

[CH4. 판단력]

AI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트렌드가 찾아온 이후로 이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같다. 다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정도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없었고,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 영상을 시청하면서 어느 정도의 고민이 사라질 수 있었다.

결국 AI 를 쓰는 건 인간이다. 정말 AI 가 인간을 뛰어 넘는다면 모르는 일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 같다. 그게 바로 판단력이다. 결국 정보를 받고, 그거를 믿는 사람, 쓰는 사람은 다 우리가 때문에 책임이 100%까진 아니어도 대다수 우리에게 존재한다.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AI와 조우해야 하고, 내뱉는 모든 말을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놓치고 있던 정답을 얻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거 같고, AI 를 많이 사용하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써보는 게 중요할 거 같다.

[CH5. 한국의 AI 활용]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한국이지만,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작년 말에 AI 관련 포럼에서 들었던 소버린 AI가 떠올랐다. 지금이야 제작을 위해 기업을 모으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 심지어 중동, 일본 등은 우리보다 앞서 제작하고 있다. 소버린 AI는 미래 사회에서 결국 국력을 의미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문화 종속이 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국내의 인사이트를 활용한 AI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꼭 필요한 도구이다. 그렇기에 이번 소버린 AI를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AI를 단순히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방향성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현재 AI 기반 서비스에서 독보적인 곳은 없는 거고, 이 시장은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이다. 게다가 소셜 벤처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었고, 일반 벤처에서도 블루오션이라면 소셜 벤처의 섹터에서는 더 블루오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으로 공감 가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AI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벤처적인 성격에서도 소셜적인 성격에서도 모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는 AI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두고 있었는데, 영상을 계기로 조금 더 깊게 도입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CH6. 나의 마음가짐]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다. “망하는 건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쟁자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국내에서 트렌드에 올라탔을 때부터 했던 고민이자 나만의 신념이었는데, 전문가의 말로 이렇게 듣게 되니 뜻이 더 크게 와닿았다. 내 도메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AI를 누구보다 많이 활용해보고, 어떻게 쓰면 좋을 지를 많이 생각해보면서 노력해야겠다.